

聖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진리를 밝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一章8절)

國立國會

發行所 6.11.28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編輯 兼人 吳 九 台 澤
主筆 華 田 榮 澤

福音新聞
THE POK EUM SHIN MUN

世界基督者七億五千萬名

二十三億七千萬의二割

新教徒는二億未滿

서카고에서 발표한 一九五三년도 푸리타나카 년간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의 개종신자의 총수는 四億二천五萬五千名이라 한다. 이 숫자는 전세계인구 二十二億六千八萬名에 대한 二割(五割一)에 해당되는 개종신자 수이다. 그리스도신자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는 것이다. 이 년간(年鑑)은 엘프이크로 베디아 푸리타나카의 九十萬語에 달하는 책인데 이 책은 전년도에 발행한 일은 대소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개종에 관한 보고에는 세계 각 종교에 속한 신자의 비교 대조표가 포함 되어 있다. 그 표의 종교란의 분류 비

- 1 세기 기독교자 수 七五〇二九二萬
- 2 개종신자 수 四二五五〇八萬
- 3 개종신자 수 一八二八〇萬
- 4 개종신자 수 一九六五〇二萬
- 5 개종신자 수 一一五三二萬
- 6 개종신자 수 三一五六九萬
- 7 개종신자 수 二五〇〇萬
- 8 개종신자 수 五〇〇五三萬
- 9 개종신자 수 三〇〇二九〇萬
- 10 개종신자 수 一五〇三〇〇萬
- 11 개종신자 수 一五五七一五萬

- 12 개종신자 수 一一一五〇萬
- 13 개종신자 수 三八七五九萬
- 14 개종신자 수 一一四萬

關西地方信徒倍加傳道開始
禮拜堂隣近教化에努力

工夫中인神學生들도隊員으로活動

관서지방에서는 총회의 금년 신도배가운데 결의에 따라 실천 방법을 협의하여 오인 박 지남 十三日부터 산하 전 교회에 일제히 춘기 대전도집회를 열었다. 각교회는 지방회내의 교역자를 교제하여 한교회(혹은 전도소)를 중심으로 삼기 전도집회를 한다. 한편 일 반교회원들을 동원하여 매일 오전十時부터 노방전도 집회안 내 교포가정방문을 주로 하는 데 각교회 집회 일정과 감사 배정은 다음과 같다. 발표하여서 담대히 그것으로 나라의 기초를 삼았다. 그들은 온 온 신앙의 백성만이 전제정치를 극복해갈 수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의무임을 안다. "고 하였다. 해방이후 또 재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과 목사들이 정치계에 많이 들어가서 국회의원으로 되고 장관도 된 것은 반가운 일이요 민중의 기대가 많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앙과 정치는 별개의 것이라고 하고 신앙은 공사에는 관계가 없고 사사로운 생활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어디가 기독교인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은 행동들을 취하는 자가 적지 아니하

社說 政治와信仰

基督教政治가에게

정치와 종교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묵은 생각이다. 옛날에는 『제정일치』(祭政一致)의 시대가 있어서 한 종교의 제주(혹 제사장) 되는 사람이 동시에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릇을 하였고 왕이 동시에 세사장도릇을 한 것은 말할 것 없고 동양이나 서양을 물론 하고 위대한 정치가는 다 종교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 정치는 결국 백성을 잘 살도록 하자는 것이요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자는 것이니 두 가지 목표는 도의와 인물은 가

장 중중하는 윤리적 종교이며 정치와 공평과 인애로 민중을 위하는 도덕적인 기초 위에 서야만 하는 정치는 종교로 더브러 밀접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가장 당연한 일이다. 영국의 크롬웰이며 글라드스톤이나 독일의 비스마르크 미국의 워싱턴이나 링컨 같은 이들은 다 위대한 정치가인 동시에 신앙이 독실한 훌륭한 종교인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지난三月一일 주일에 와싱턴 장로교회에서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리고 한창 대통령 선거운동에 바

아메리카 전대통령(前大統領) 두루-맨씨는 일본인 후지다미(淵田美津雄) 씨와 한담하는 석상에서 일미전쟁(日米戦争) 문제에 언급하여 "하나

한국의 국권(國權)을 침탈한 것은 문제의 현상에서 도 저하 생각할 수 없다. (二) 공산주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가능성이 있다

수밖에 없다. (三) 공격을 하되되면 우리는 당 대한 병력으로 정면공격을 도

이런 전도정비에 당사자를 다 라 전도대원으로 활동하는 이들

審判者앞에는同等한罪

日米戦争에關한 두氏見解

宗教的으로訓練된良心

아메리카 전대통령(前大統領) 두루-맨씨는 일본인 후지다미(淵田美津雄) 씨와 한담하는 석상에서 일미전쟁(日米戦争) 문제에 언급하여 "하나

다. 더구나 종교관이 되면 내가 언제 신자였는가 하

는 데도를 취하고 그들은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하니 진실로 한심한 일이다. 실상은 그렇게 자한

우리는 그네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연회소에서 술을 마시는것만 가지고 말하는것

의외의 지점에서 다른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민주진영에 입

平和提案은手段에不過

確固한政策과貧困除去가問題

△氏의 韓國戰亂解決策

수밖에 없다. (三) 공격을 하되되면 우리는 당 대한 병력으로 정면공격을 도

이런 전도정비에 당사자를 다 라 전도대원으로 활동하는 이들

은 현재 관서지방에있는 각신 학교에재학중인 우리신학생들

는 일미(日米) 전쟁에 불을

은 생활태도에 따라가것을

말하는것이다. 지금은 조국이 역사 이래의

그리고 앞으로 동포형제의

가국민은 현재까지보다 더 큰 노력과 광대한 지역의 발취를

속시키느냐 하는것인데 그것

그는 그후 예수를 믿고 패

교단제의 초점으로 미국에 가

을 하고 맥카더-원수를 비

못하여 니 손부통령등 관린다

수를 방문을 하였다는데"살인자

서 금년하기수양회는 통일수양

를 바라고 있다. 한때

를 보드라도 공산주의 방법

이 실종이 나도록"하는데

내가 일찍 지적한바와 같이

최음에는 정치적 문제를 이

우수면서 대답하였다 고 한다

위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십있는 사람을 우리나라 지

선교가 있었고 밤에는 로마서

을 어머니주일로 지냈는데

그리고 그날은 우리들의

우리의 공산주의의 대중화

다 더욱 강력한 정책으로

을 생각한다 우리는 고종시

우나 성내지 말고 천천히

실한 정의의 전진을 하여야

할것이 요청된다.

○후견이 될 가 능

다 우리



望臺聲

統一夏期修養會中止

地方・團體別集會準備

東京教會소식

총회위원회는 지난번 회의에

서 금년하기수양회는 통일수양

를 바라고 있다. 한때

○후견이 될 가 능

다 우리

을 생각한다 우리는 고종시

우나 성내지 말고 천천히

실한 정의의 전진을 하여야

할것이 요청된다.

○후견이 될 가 능

長老會總會問題直決

憂慮되는各老會의態度

轉職者聖職名返還도勸告

特別報道員 金在和

대한장로회 제三十八회총회는
四月二十四일에 대구서문교회에
백만신도의 주목하는 정기회로
개회되였다.

會場정면에는 『화평으로 연합
운운하는 성구들』 표어로 부치
고 개회설교에 있어서도 김교
장은 『自己否定』과 『榮光爲主』
하는 뜻깊은 말씀이 있어 회
합과 청중을 자중케 하였으나
총회를 개회하기 위한 회원
정리에 있어서 분열된 총남로
회와 전북로회의 회원전원제가
이러나 회장은 대소란을 이르
렀다. 총회는二十四에 개회에
배만 보고 문제수습때문에 개
회 못하고 말았다.

二十五日午前十時에 문제의
로회원을 발언을 봉쇄하고 개
회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장내는 엄숙하고도
긴장하였으나 소위 호원총회측
의 발언이 때때로 회의진행에
문제도 이르렀다. 그러나 숫자
상으로 보아서一百七十여명
대중 반총회측이 불과二十數
이 었기때문에 큰 난관없이
회의는 진행되었다.

사건처리전에 임원선거 있었
는데 총회장은 대구 명신총회
사가 (一〇二표로) 피선되고 부
회장은 영락교회 한경직목사
사기에 안광국목사가 각각 피



手術捕虜思想 —危機의人間—

최근 아메리카 뉴-유에서
보도된바에 의하면 미국은 한
국전선에서 공산군에 포로되었
다가 귀국한 병정들을 받드
리는 광경은 메데이방출을 비
롯하여 신문 위디오등으로 혼
란에 가까운 광희적 일막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아
이젠하-워가 대동영 원후의
우울을 제거하는 한장면으로서
일한국민에게는 새로운 화제가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동란이 이러났을해 (一九五
〇)의 가을에 포로로 북한에

잡다온 영국목사(牧師)의 증
언에 의하면 『포로일행은 九日
간 강제행군을 하였는데 그길에
서 九十六명이 죽었고 목적지
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二百五
十명이 피곤하여 깨꾸러졌다』
하여 뜻는 이로 동심을 치게
하였다 하며 한편 뉴-쓰츠는
전쟁에서 죽은자수의 四분의一
의 수자의 포로는 학살되었으
리라 하는데 대략 六千名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반가운 중에
슬음을 주었고 귀국한 병정중
에는 세뇌(洗腦)라는 말로

안간처리에 있어서는 말성도
많았으나 한국신학대학과 김교
수에 대하여 총회가 직결하고
운지를 말하게된것이 이번총회
이 역사적인 사실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가지는 현재 목회
를 떠나서 관공직에 있는 교
역자들에게 성직(聖職) 사면권
고를 하기로한 일이 큰 문제
중에 하나이 었다 회의는 개
회가 하로났었기 때문에 예정
보다 폐회도 하로 늦어 二十
九日 오후八時경에 끝났다.

問題는完全解決인가
이번총회는 한국기독교역사상
에 크게기독될 사건들을 처리
한것이 사실인데 거기 대하여
소결을 기록한다면 다음과같다
한국신학대학에 대하여 직영
을 취소하였는데 이것은 직영
(直營) 문제가 아니라 인정문
제(認定問題)인줄 아는데 휴
浦로회에서 출석한 박용수氏로
부터 질문도 있었으나 결국
한국신학대학을 종업한후 총회
신학교에 一년간 수업함으로써
교역자가 될수 있는 길을 남겨
둔다는 것으로 되었고 김교수
문제는 정기회로정 전필순氏와
그의의 몇분의 질문이 있었으
나 소위 교동비판문제로 (一九
四七年도총회때부터의 문제) 원

慎重한善後策을要望 處斷보다抱攝統合을

대한장로회 제三十八회 총회
의 문제점은 현지동심에 의하
여 알수있거니와 그 후문에
대하여 東京서 얻은 민을만한
포로생활의 과거를 설명하여
공산주의를 칭찬하는자와 자
나라를 비판하는자들도 있어
아메리카의 자유에 새로운 근
심이 더 하여진 형편이라한다
예를 들면 국련군이 북한과
공산지역에 세균병기(細菌病器)
를 사용하였다는 방송을한 미
국해병대 부대이 소좌는 공산
군의 계획적인 조정으로 공복
과 수면부족과 공포로 정신마
비상태에 빠져 공산군이 시키
는대로 방송도 하게되었다는데
그런 조작을 받은포로도 귀국
한자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에
서는 면회금지령 시키고(○)의학
적으로 그들의 정신상태를(○)처
로하여야 하리라는 문제도 일
고 있다는게 기록자중에는(○)

애정으로 그들을 영접하여 자
유로운 분위기에서 아메리카적
정신생활상태에 도다하도록 하
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는
등 아메리카는 포로 귀환에
있어서 숫자가 줄다가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것은 요사히 일본에 번역
된『洗腦』라는 E. 한라-의 쓴
책을 보면 중공과 북한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너를 썬는다』고 하
면서 정신병치료하듯이 의학적
으로 하는 그 사실이 공산치하
에 있음을 알수있는것이다. 이
일에 관련된것은 민권디라는
캐슬릭신부가 자기는 스파이였
다고 억울한 죄상을 일개 자
인하였다고 하는 문제의 배후

怨望스려

가 있어서 그러지는 않을것이다.
三八이라는 文字 數字를 손
자로 쓴 시인의 글에도 아다
나 대한 장노회총회 결과보로
를 리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三八이라는 어구(語句)에 관
한 원망스러운 생각이였다.
三八線!三八따라지!三八총
회!이 오다가 한민족과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서 눈물 피이
는 일로 기록될것이 현망스럽다
三八線은 일본사람에게 있어
서도 문제였고 눈물이 었다.
어떠 일본어성은三八線을 넘
던 이야기들을 기록하여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자아내고 큰
한숨을 기가 막히게 내놓게하

면 제三十八회총회는 끝날때에
광노라고五日만에 끝났으나
문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남
아있을것을 재일 우리총회원들
과 아울러 근심하며 이번 대
한장로회 제三十八회총회 참관
기를 끝나는 바이다 더 일찍
이 기록하여 보내어야 할것의
였으나 총회후문을 못모르하다
가 이번에는 이만 끝낸다.

히브리인서

(新約)
(講解)

求道者

一本書의 著者 이 전자는 막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막달의 기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록하였으리라고 할뿐 누구의 기록인지 알수 없다. 신학자 오리겐은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하나 남의 사실은 이라 하였다.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록한 그의 사문화의 모양도 또한 철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한 것이라 하겠다. 복음에 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 충열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본질을 밝힌 편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편지는 사문이다.

二本書의 著者 이 편지는 막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막달의 기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록하였으리라고 할뿐 누구의 기록인지 알수 없다. 신학자 오리겐은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하나 남의 사실은 이라 하였다.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록한 그의 사문화의 모양도 또한 철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한 것이라 하겠다. 복음에 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 충열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본질을 밝힌 편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편지는 사문이다.

三本書의 著者 이 편지는 막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막달의 기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록하였으리라고 할뿐 누구의 기록인지 알수 없다. 신학자 오리겐은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하나 남의 사실은 이라 하였다.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록한 그의 사문화의 모양도 또한 철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한 것이라 하겠다. 복음에 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 충열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본질을 밝힌 편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편지는 사문이다.

四本書의 著者 이 편지는 막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막달의 기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록하였으리라고 할뿐 누구의 기록인지 알수 없다. 신학자 오리겐은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하나 남의 사실은 이라 하였다.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록한 그의 사문화의 모양도 또한 철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한 것이라 하겠다. 복음에 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 충열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본질을 밝힌 편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편지는 사문이다.

五本書의 著者 이 편지는 막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막달의 기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록하였으리라고 할뿐 누구의 기록인지 알수 없다. 신학자 오리겐은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하나 남의 사실은 이라 하였다.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록한 그의 사문화의 모양도 또한 철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한 것이라 하겠다. 복음에 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 충열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본질을 밝힌 편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편지는 사문이다.

六本書의 著者 이 편지는 막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막달의 기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록하였으리라고 할뿐 누구의 기록인지 알수 없다. 신학자 오리겐은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하나 남의 사실은 이라 하였다.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록한 그의 사문화의 모양도 또한 철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한 것이라 하겠다. 복음에 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 충열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본질을 밝힌 편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편지는 사문이다.

七本書의 著者 이 편지는 막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막달의 기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록하였으리라고 할뿐 누구의 기록인지 알수 없다. 신학자 오리겐은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하나 남의 사실은 이라 하였다.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록한 그의 사문화의 모양도 또한 철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한 것이라 하겠다. 복음에 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 충열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본질을 밝힌 편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편지는 사문이다.

윤 二八

수의三八號를 죽을 고생을 겪으면서 넘었는데 아이구! 생각만해도 눈물이 피인다는 자만에서 혹은 회상에서 나누나 하고 시간것인줄 안다.三八號라지 라는 말은 일본에만 오래 개서고 해방후 조국에 가지 못한 이들은 아마 잘 모를 말일줄로 안다. 미안

단 오책일자(유치 은명)는 “금번 총회는 소집되기 전에 애국하였던 것 보다 너무 감격하였고 어려운 문제를 총회가 해결한다고 한 것은 유감이라”고 하여 끝은 불에 냉수를 뿌리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한다

일본복음부터(미국개신교)와 북음부터(핀란드개신교)는 四年間 合同문제를 협의하여 오던바 지난七日 東京에서 개최된 양파(兩派)대회에서 원안(合同)조약을 맺었다. 이 사실은 말상만하면 본별(本別)로 발전할 줄 알고 본별(本別)을 계속하던 일본교계에 새로운 반성의 경종을 울렸다. 이 양파의 합동문제는 二年반 동안 합동위원회를 조직하고 피차간의 문제점을 더듬으며 협력할 애끼지 않고 노력하여 오던바 자년총회에는 피차가 합동위원회에서 제출한 합동조약 초안을 통과시키고 금번에 양파대회 앞에서 대표자들로 조인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 조약문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본복음부터(미국개신교)와 북음부터(핀란드개신교)는 四年間 合同문제를 협의하여 오던바 지난七日 東京에서 개최된 양파(兩派)대회에서 원안(合同)조약을 맺었다. 이 사실은 말상만하면 본별(本別)로 발전할 줄 알고 본별(本別)을 계속하던 일본교계에 새로운 반성의 경종을 울렸다. 이 양파의 합동문제는 二年반 동안 합동위원회를 조직하고 피차간의 문제점을 더듬으며 협력할 애끼지 않고 노력하여 오던바 자년총회에는 피차가 합동위원회에서 제출한 합동조약 초안을 통과시키고 금번에 양파대회 앞에서 대표자들로 조인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 조약문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본복음부터(미국개신교)와 북음부터(핀란드개신교)는 四年間 合同문제를 협의하여 오던바 지난七日 東京에서 개최된 양파(兩派)대회에서 원안(合同)조약을 맺었다. 이 사실은 말상만하면 본별(本別)로 발전할 줄 알고 본별(本別)을 계속하던 일본교계에 새로운 반성의 경종을 울렸다. 이 양파의 합동문제는 二年반 동안 합동위원회를 조직하고 피차간의 문제점을 더듬으며 협력할 애끼지 않고 노력하여 오던바 자년총회에는 피차가 합동위원회에서 제출한 합동조약 초안을 통과시키고 금번에 양파대회 앞에서 대표자들로 조인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 조약문은 요지는 다음과 같다.

日本에서는 敎派合同調印

루터—兩派 四年間協議

名古屋敎會通信

名古屋敎會에서는 五月十七日 主日날 예배에 『人生과信』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본문은 마태복음 三十절 이하였고 설교자는 김명성목사였다. 예배 후에 부인전도회, 열매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광고에 의하면 온교회원은 예배당 건축비 부족액 四十萬圓을 청산하기 위하여 六月二十一日 주일에 특별헌금을 하리라 하며 위하여 기도하자고 하였다.

下關敎會 기념예배

下關敎會에서는 五月十七日 주일 낮예배에 설교사 하와드씨가 『自由』에 대한 설교가 있었고 밤에는 음악예배가 있었다. 다음 二十四日 주일은 동교 최철립기독교주일로 학술발표대례식이 안영준목사 사회로 시행되리라 한다.

壇 보다 貴한 生命

마래 6.26 | 29

田 榮 澤

講

공중의 새는 어찌하여 곡식을 창고에 간직하지 아니할까 새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는 살수 없지마는 공중나는 새는 금일이 있을뿐이오 내일이 없기때문에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일이 없는것이다 공중나는 새와 사람이 다른 것은 이뿐이 아니다 공중나는 새는 오늘 필요이상 먹물것을 저축하려는 욕심이 없다 사람의 욕망은 아무리 소유해도 한이 없는것이다 사람은 항상 죽음의 불안을 느껴서 날마다 바동바동 싸우면서 어찌하면 자기의 욕망을 무한히 만족시킬까하여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것이다

예수님의 이 교훈은 사람의 생(生)에 대한 불안과 욕망을 들어내시고 또 인생의 가장 값은 비밀을 들어내신것이다 사람의 근심은 먹물것에만 그치는 것이아니라 또 의복으로 인하여 염려를 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것도 큰 걱정거리지마는 무엇을 입을까하고 염려하는것도 사람의 생활에 적지아니한 문제거리라고 할수있다

이복이 만일 순전이 보온(保溫)의 목적으로 추위를 면하거나 몸을 가리려는 것이

다면 그다지 걱정할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년 내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을까만은 따뜻한 지방에 사는 사람은 이복으로 인하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복은 보온을 위하여 그보다 그 사람의 지위를 표시하고 자기들을 자랑하려는 것이 다 돈이 있고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 자랑과 영광을 의복으로 표시하려고 한다 사람은 그욕심을 만족시키기에 한이 없는것이다 사람은 명예와 자랑할것이 없으면 살아가는 보람이 없게 생각한다 그들의 배합하는 자기의 입는 것으로 남에게 자랑하지 아니하지만은 사람은 이복으로 염려를 아니하고는 살수 없는것이 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의 처지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복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복때문에 걱정을 하게되는 이들도 많지마는 예수께서 사람의 한없는 욕심과 자랑하는 생각이 의복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에 들어나는것을 보신것은 당연한일이다

소위 출세와 성공이라는것도 자기의 명예욕과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사람의 주

의를 끌고 관심을 집중시키지 아니하면 사는 보람이 없는것이 생각하는것이 사람의 천성이다

사람이 이복으로 자기들을 자랑하고 들어내려고 하는것처럼 무엇으로나 나와 남을 비교하고 자기들을 들어내서 조공이라든가 남보다 나은듯한데 만족하려는 본성이 있다 특히 권력을 잡아가고 여러사람을 지배하고 남이 우러러보는 지위를 얻기위하여는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다 성경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라고 한것이 있거니와 (요한1서2장16)이 정욕과 자랑은 험악한 사 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거리라고 할수있는것이다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하시고 그설명과 실례도써 다 시 하시는 말씀이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것이 미 못하나만 갈지못하였나니』 하였다

예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만큼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과 영광을 누린왕은 없었다 그때의 솔로몬의 영광이라하면 신간의 최고영광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는것이다 그의 왕궁도 과연 놀랍고 훌륭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의 주의와 관심을 끄는 찬란하고 훌륭한 옷을 입은자가 이스라엘 역사에는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들에 핀 보잘것없는 화초만큼도 그 가치를 치지아니하셨다 솔로

몬의 영광도 사람의 정욕과 자랑을 들어내려는게 지나치운 하기때문이다

『대개 인간의 모든 시그널고 교용되는 문제가 다 이런 정욕과 자랑에서 일어나는것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을 자랑하는 마음을 다시 따져보면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자랑을 더 귀하게 여기는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할수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게 하옵시며』로 시작하여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 것은 뜻이 깊은 것이다

『이복을 거룩하게』 한다는것은 하나님만이 주시요 사람은 그 좋아한것을 나타내는것이 다 사람의 모든 실수는 결국 하

傳道欄

H 大

『H대위가 어떻게 그렇게 번 했어!』

『그사람이 참 번했지』

『글세 그사람이 그렇게 좋아 하는 술을 파 주는것이 우선 신기하지 않은가』

『술 뿐인가 전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됐나니까?』

『글세 이제 제가 술을 영 팔을가』

『아주 만 사람이 되었다니까 그래』

이렇게 H대위에 대해서는



校 座 會 學 教 師 教 授

教授結果의測定

魯安理

(一)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이 어 떤지나고 있는가 어떤 경 과를 밟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좋아한다. 발을 갈고 있는 농부는 지금 자기가 열 마나 일하고 있음을 똑똑히 보고 알수 있다. 비단 농부만 그런것이아니라 무슨 직업이나 대개 그런 주정을 할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 학교에서 는 일정한 때에 시험을 행하 여서 진급하여 가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종교교육에 있

는 결과의 측정은 우선 교실 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학습하는 가운데에서 그 재주와 지식을 측정해 내 어야 할것인데 제일 쉬운 방 법은 출라쓰가 전교의 행사에 행하는 기뢰일것이다. 그러면이 하 그 측정방법을말하기로하자 학생에 관한것. 종교교육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인격체 에 관련하는것이니 우리가 관 찰할 대상중 제일 중요한것은 그 인격체 곧 그 사람의 태 도와 생활이다.

一 타인에게 대한 태도. 가장 높은 의미로서의 타인 의 존중: 이것이야말로 종 교교육에서 양성 발전시켜야 할 태도 중 하나이다.

1 교실 생활에서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히 생각해 주고 있는가? 조심 예의 무슨 일 이나 타인도 거기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것 남 과 협력하는것 남의 소원을 존중시키는것등이다. 그리고 또 이런 태도를 그들은 비단 교 실 생활에서 뿐이아니라 운동 장 혹은 연구 활동 중에서도 잘 행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는 그 부모 기타 온 가족이 역시 이런 태도를 행하고 있 는가? 남에게 친절한가? 남 이 발하는 것을 행실을 가지 고 이행하여 주는가? 남과 정하기를 좋아하는가? 사람을 사랑하는가?

2 교실에 따라 이러한 조사

나를 창조로 하나됨으로...
 ...가 되었다.

위入信記

천구간에서 상당히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그는 개성에서 유명한 건축...
 ...가 되었다.

하다가 뜻 하는바 있어서...
 ...가 되었다.

이들해 봄에 싸움이 점점...
 ...가 되었다.

救國禁食祈禱會準備

六月二十五日을 맞이

關西지방에서는 제14회...
 ...가 되었다.

李朝諸宮

昌德宮은 이조대도 가장...
 ...가 되었다.



昌德宮

本國新聞論調

三千萬의 絶叫

國際新報

어제도 오늘도 무대인 學徒들의 聲은 悲調을 띠우기 시작했다. 「統一없는 休戰은 決死反對한다.」 「弱少民族의 運命을 유린할者 누구냐」 韓國青年의 吶의代價를 달라. 눈물어린 눈동자에는 이 땅의 悲劇이 스며있었고 끝없는 行進의 隊列은 항거의 聲이 울음을 쳤다.

六·二五動亂으로 數百萬青年同僚들의 生靈이 吶의 祭壇에 오르고 數없는 戰災民慘相을 눈앞에 보며 文字그대로 廢허化한 祖國江山을 앞 에 놓고도 運命의 神은 우리에 게 냉혹한 現實만을 强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殘虐한 運命의 作亂에 항거하기 위하여 三百萬 韓國學徒가 絶叫하였다. 그것은 共產暗黒政治로부터의 解放에의 絶對이며 國際的列強政治의 非人道的인 兇惡으로부터의 弱少民族의 生命의 呼訴이다. 虛위와 策略과 壓制와 暗黒의 共產勢力은 八·一五以後六年間 全進한 우리兄弟를 北에 서 노예化하고 六·二五南侵으로 同族相殘의 慘劇을 現實을 만들었다. 일찍이 우리 가 경험하지 못한 歷史上 空前의 慘劇이 演出되었는 것이다.

前의悲劇이 演出되었는 것이다. 一線에서 必使의인 戰鬪에 生捕한青年은 同族이었고 그것도 民主韓國을 동경하는 神聖한 자유인이었으니 일구진 運命의 作亂이 이보다 더할 이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들과 싸워야 하고 그것은 우리 의 자유와 平和를 守護하기 위해서 當爲의 行動이었다. 實相우리의 統일은 同族에게 向해졌던 것이 아니라 惡毒한 支配者 共產侵略者에게 우리 의 砲火를 피 부었던 것이다. 微天之원수 共產侵略軍을 祖國土에서 몰아내기爲하여 同族의 生命을 달게 맡은 것도 眞正한 平和를 위한 값비싼 代價를 支拂하였던 것도 노예化한 北韓同族을 解放함에 서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모든 社會代價가 安게사 列強政治의 陰謀성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저버려질 不吉한 時局이 우리 共產主義者들의 간교한 休戰提議案과 歐美列強의 呼應이 것이다.

名譽로운 休戰이 韓國戰의 休止停止와 統一을 위한 政治

詩

누이생각

현은이 꿈결같이 暗막은 靑靑 내리는 그날 저녁
누이야 그날저녁
동편 방에 우리는
너와 나와 또 동생과
셋이 가지런히 앉아서
소곤소곤 그밤이 다가도
이야기 할 적에 그날
너도 왜 눈물은 흘렸나
×
누이야 너도 여성이었던 만
한번 그불을 밝은 뒤로는
만주벌판에 달려간 입도

남들이 여러만지는 비단옷
오나 따뜻한 발도 자리도
다 모른다 겁이 차버리고
심자가에서 피흘리시는 주만
바라보고 바라보고 가슴치는
오오! 너는 막달라라 아셨나
누이야 너는 왜 안왔나
무심한 동생을 다 보내고
보안대원 수모에 물면서도
아부지집은 기어 내지킨다
남은 식구 불을고 살더니
종내 무슨 죄라 철창에서
얼음인 차디찬 마룻바닥도

對話

對主日準備

對主日準備
꽃
동네인가 가까운 동산
때. 초여름
사람. 정자(일출설)
예리(일출설)(기가적음)
정자어머니(三十세가람)

다. 韓國의 자유인들은
나. 吶의인 共產好戰者
왔다 美蘇共産의 天賦가
것이요 南北諸國의 運命
提議等은 共產主義者들의
型的인 음모였었다 國際的
義에對한 그들의 非難은
이미 反共立憲戰爭行進中의
모든 公約과 密約을 유린하

한글교실 제6시간

張曉

(물음) “불렀다” 따위의 “러”는 “러”로 발음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너”로 발음하는데, 어찌하여 “불렀다”로 적지 아니하고 “불렀다”로 적는 것입니까? (京都敎會 ○ 人 지)

(대답) 이 물음은 높은 이에 게 직접으로 대답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불렀다” 보다는 “불렀다”가 더 소리대로입니다. 이 물음은 소위 “혀소리(단단한 “ㄹ” 소리)를 말씀하십시오, 과거에는 물론 “달달달랑, 날래다, 빨리, 얼른, 홀로” 따위의 지금 “ㄹㄹ”로 적는 “혀소리”를 “달달달랑, 날래다, 빨리, 얼른, 홀로”로 모두 “ㄹㄹ”으로 적은 것입니다. 지금의 맞춤법을 배운 이는, 과거에는 몰라서 그렇게 적었다고 그저 치우쳐 버리기 쉬우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혀소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와 같이 “ㄹㄹ”으로 적은 것인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ㄹㄹ”(불너, 홀노)으로 적음이 두 소리마디 사이에서 나는 “혀소리”에 맞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ㄹ”은 ㄹ소 리이므로 코를 막고 소리내어 보면 알거니와 “ㄹ”소리가 나지 아니하며, 또 “ㄹㄹ” 다음에 “ㄹ”이 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ㄹ”을 낼 때의 혀의 모양이 “혀소리”를 낼 때의 혀의 모양과 비슷하므로 그렇게 적었으리라고 생각됩니

다. 혀의 모양이 “혀소리”를 낼 때의 혀의 모양과 비슷하므로 그렇게 적었으리라고 생각됩니

혀소리는 (1)과 각각 거진 같은 소리입니다. “불이”와 “불만”의 “ㄹ”의 소리가 서로 같지 아니함을 알거나 모르거나 적기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마는, “홀로, 얼른”과 같이 두 소리마디 사이에서 나는 혀소리는 과거의 습관도 있어 잘못 적기 쉬운 것입니다. “갈-날”과 같이 꼭 “ㄹ” (날)으로 적어야 할 까닭이 없는 것이면, 한 낱말 안의 두 소리마디 사이에서 나는 단단한 “ㄹㄹ” 소리 (혀소리)는 “날래다, 몰래” 따위와 같이 모두 “ㄹㄹ”로 적고, 또 “ㄹㄹ”로 적힌 말은 단단한 “ㄹㄹ” 소리 (혀소리)로 읽는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들은말로 “골노새, 갈나디아”와 같이 “ㄹㄹ”으로 적었으나,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골로새, 갈라디아”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혀소리 “ㄹㄹ”은 “ㄹㄹ” 위에 서는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구개음화한)로 발음합니다. 여기 대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ㄹ”은 여기 말한 바 세 가지 소리로 발음합니다. 이삼 물음의 범위에서만 대답합니다 (敎本)

우리말의 맞춤법의 모든 문제를 규정한 통일안은, 누구나 다 가져야 할 책입니다. 특히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있습니다.

어
린
애

머리어머니 (三十세가령)
 동네할머니 (七十세)
 (정자와 예리가 손을 잡고
 한손에 바구미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온다.)

秋湖堂人

주님	옆에 오신	그	기쁨에
눈물로	눈물로	누아	젖어라
하로는	적마의 손에	이끌려	
바람찬	술판에	우족	서서
평안성도	울리는	한소리에	
하늘이	넘리며	거룩한	모습
바라보며	바라보며	갔나니	
주님 앞에	야누가	보인	것은
누이아	이제	너는	몬져
동생은	서울	아름은	이역에
일을 밟으며	눈물짓	나	

다. 그러면, "회음소리"란 무엇인가? 가래, "사람, 어름, 물이, 물이" 등에서 나는 "인" 소리와 "하락, 락, 락, 물" 등에서 나는 "인" 소리를 비교하고 보면, 외의 모양이 서로 같지 아니합니다. 물, 락은 것은 "회음림소리"로, 외음은 것은 회음소리로 납니다 회음림소리는 만국 음성 기호의 (I) 와, 외음 (한글 표식) 도 여러본에서 동일안을 공부하시는 가운데, 의문되는 점을 물기에 이용하시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시는 본은 십비 60원 (10원 우표로) 을 본사 "한글 표식"로 보내시면,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회신의 저정된 판으로 교환건의)

으로 자유와 평화를 보장하
는 것이요, 歐戰의 停戰에
應하리라

參攷한 切性耳 고요한 理
想의 所有者 靑年學徒들은
우리 韓國政府의 六三五被侵의
책임까지도 묻고 있는 것이다.
無爲無難한 政府의 過實이 이
제 不吉한 列強政治의 結果

정자. 아이유 머기 예쁜 꽃
들 많다 예미약
예리. 참 머기 나물 열렸두
 많다 정자
정자. 그때 그 열 두 개 거기
서 나물 캐 나는 머기서 나물
팔게
예리. 그때 (갑시 노래)
정자. 예리야 너 나물 많이
팔니
예리. 그때 많이 팔다. 너는
정자. 나는 열아 못 팔아
예리. 네 나물 좀 줄까
정자. 그래
예리. 엇따 자 너 예쁜꽃들
있구나 그거 나하 주
렴 정자야
정자. 싫어 이런 우리 언니
갔다 줄 열매
예리. 하나 주어 나 우리 언
니 갔다 주게
정자. 싫어 너도 있나 언니 보
렴 왜 남 들은 건 달래
예리. 그렇게 예쁜 꽃 없는 건
하나만 주어 정자야
정자. 싫어
예리. 기까지 것 하나 안 주어
(정자의 바구미를 탁 치자
꽃이 떨어진다 떨어진 꽃을
잡으면서) 이까지
정자. 난 몰라 난 몰라 (복
리의 바구미를 탁치면서)
이까지 이까지 거 (예리
의 나물 한 마디는)
예리. 난 몰라 난 몰라.
정자. 아 그래
정자. (정자부터 주자 이거 밑천
다)
정자. (복리) 꽃 팔지. 꽃
팔지 (복리) 팔지 (복리)
정자. 아 그래. 노 꽃 우리
몰라 팔면 그 값 복리도 가
를 간대 동해 팔리거든
우. 나까지 팔게나 팔을지
(복리) 주자 이거 몇 개 주
자.)
정자. 몇 개 주자 난 팔면 구해
다 (복리) 팔지 (복리)
정자. 아 그래. 무얼 구할 (복
리의 머리를 만져주고 치마를

을 들어 매치지 못한다면
同志의 시체를 다시 넘어 統
一の聲에 오르리라 자유의
本島美國의 御野國民들이 우
리의 統一悲願을 이해하고
協調하여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유를 위하여 죽어 이나타
青年의 자유理想을 壓死하여
장사함을 감수하리라.

[illegible]

小說

새벽종 (三)

西華嚴經

[illegible]